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호서대 교수

탄소중립은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에 비교될 수 있다. 청동이 돌을 대체하면서 지역 간 분업의 가속화로 정치, 경제, 가족,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현대문명의 탈탄소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사시대와 지금은 전환의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에 수천 년이 걸렸다면, 탄소중립에 허용된 시간은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실현은 로맹 롤랑의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로 접근해야 한다. 지성을 동원해 비관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희망과 의지를 꺾지 않고 주어진 도전에 낙관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처럼 실현이 어려운 목표일수록 초기에는 방향 및 과제 설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1) 부담-비용 담론을 기회-편익 담론으로, 2)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체를 시민, 기업, 지방정부 등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3) 성장주의에서 연대와 협동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 과제로는 ① 재정-금융제도의 녹색화, ② 에너지 전환과 기술혁신 가속화, ③ 탄소중립 도시/산업 클러스터 구축, ④ 저투입-탄소순환 농업으로 전환, ⑤ 탄소흡수원 복원·확충, ⑥ 순환경제 활성화, ⑦ 공정전환 등 7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학은 정책과 국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영향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대규모 탄소중립 사업 및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